



QR코드를  
스캔하세요

#고양원픽 #고양소식 #고양시

모바일 고양소식지의 새이름 **고양원픽**  
고양원픽 공유하면 선물이 쏟아집니다!

핫한 소식과 정보를 원해?

모바일로 꼭해!

# 고양원픽

G O Y A N G O N E P I C K



고양원픽.kr



#### 참여 방법

- ① 「고양원픽」 사이트에 접속하세요(고양원픽.kr / gy1pick.kr)
- ② 메인화면의 이벤트 시안을 클릭, 이벤트 게시글을 본인의 SNS로 공유하세요 ★ 해시태그(#고양원픽, #고양소식, #고양시) 입력 필수 ★
- ③ 공유한 본인의 SNS 게시글 URL을  
「고양원픽」 독자마당→이벤트 참여 코너에 등록해주세요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네이버카페에 공유한 URL만 참여가능

#### 대상

누구나 참여 가능

#### 응모 기간

2022. 6. 7.(화) ~ 6. 28.(화)

#### 발표

2022. 7. 1.(금)

#### 상품

스타벅스 기프트콘  
아메리카노 2잔  
**100명**



고양고양이  
인형  
**20명**

※ 당첨자는 추첨 후 고양원픽 및 고양시 SNS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GOYANG CITY MAGAZINE

2022 JUNE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소식지  
<고양원픽>을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세요

#고양원픽 #고양소식 #고양시

모바일 고양소식지의 새이름 **고양원픽**  
고양원픽 공유하면 선물이 쏟아집니다!

맛한 소식과 정보를 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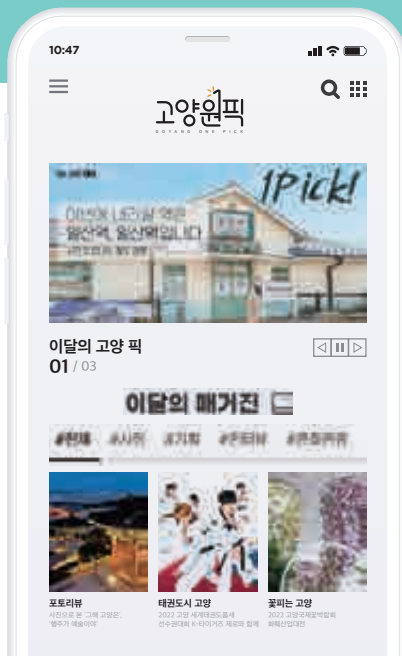
모바일로 픽해!

# 고양원픽

G O Y A N G O N E P I C K



고양원픽.kr



#### 참여 방법

- ① 「고양원픽」 사이트에 접속하세요(고양원픽.kr / gy1pick.kr)
- ② 메인화면의 이벤트 시안을 클릭, 이벤트 게시글을 본인의 SNS로 공유하세요 ★ 해시태그(#고양원픽, #고양소식, #고양시) 입력 필수 ★
- ③ 공유한 본인의 SNS 게시글 URL을 「고양원픽」 독자마당→이벤트 참여 코너에 등록해주세요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네이버카페에 공유한 URL만 참여가능

#### 대상

누구나 참여 가능

#### 응모 기간

2022. 6. 7.(화) ~ 6. 28.(화)

#### 발표

2022. 7. 1.(금)

#### 상품

스타벅스 기프트콘  
아메리카노 2잔  
**100명**



고양고양이  
인형  
**20명**

※ 당첨자는 추첨 후 고양원픽 및 고양시 SNS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COVER STORY

「사랑하는 나의 첫 친구」

6월호 표지에는 일산호수공원 '노래하는분수대' 풍경을 담았습니다. 이곳은 모델로 참여한 시민 김자경, 최세영 님, 김시훈, 이휘준 군이 고양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자랑스러운 고양특례시민, 3살 김시훈입니다. 세 살배기가 무슨 말을 이렇게 잘 하나고요? 실은 엄마의 입을 빌려 사연을 전하는 거랍니다. 친척도 사촌도 없는 저는 '친구' 라는 존재가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그런 저를 위한 엄마의 노력에 찰떡궁합 같은 친구 휘준이를 만났습니다. '윙파장'은 저와 휘준이의 첫걸음마 연습 장소이자, 지금은 주말마다 키펀드를 함께 배우는 행복한 놀이터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첫 친구 휘준아! 우리 고양에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자!”

이달의 꽃

## 장미

어린 왕자가 사는 작은 별에  
씨앗이 날아왔고 꽃을 피웠다.  
어린왕자는 장미꽃 씨앗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봐주었고  
정성껏 물과 바람을 막아주었다.

“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공들인 그 시간 때문이야  
”

이름	장미, Rose, 薔薇
학명	Rosa hybrida
개화시기	5월~6월
분포	북반구의 한대·아한대·온대·아열대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소식지  
<고양원픽>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약방에 감초는 떠나고 없지만

1970년대, ‘약방’은 동네마다 한 군데씩은 꼭 있던 그야말로 ‘약방에 감초’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약방이라 하면 약국을 떠올릴 테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약국에는 약사가 있었지만, 약방에는 없었으니까요. 그 시절 약방은 별다른 지식 없이 약을 들여놓고 판매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만큼은 신통했나 봅니다. 어린 시절 “애야, 약방에 들러 약 좀 사오너라”는 말에 심부름을 가면, 주인장은 척척 박사처럼 필요한 약을 골라 쥐어 줬습니다. 약을 건네받은 어른들은 묘약이라도 얻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했지요.

사진은 과거 일산역 부근에 있던 ‘서울약방’ 풍경입니다. 간판에 주소를 보면 대략적인 시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고양군 중면 일산리 621번지’. 중면이 일산읍으로 바뀐 것이 1980년 10월 21일의 일이니, 사진은 1980년 이전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번도 뒷자리도 없이 ‘359’라고만 적힌 전화번호만 보더라도 꽤나 오래 전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울약방이 내어준 자리에는 이제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가, 공원이 들어섰습니다. 어제의 약방에 감초는 떠나고 없지만, 고양은 ‘살기 좋은 도시’를 논할 때 결코 빠지지 않는 오늘의 약방에 감초가 되었습니다.

### 고양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고양시가 109만 특례시로 피어나기까지는 귀중한 역사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고양소식>은 특례시 고양의 소중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사진 자료를 기다립니다. 시민 여러분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시면, 지면에 소개하고 소정의 기프트콘을 발송해드립니다.

**보내주실 곳** gysosik@naver.com **참여방법** 사진, 사진 설명, 이름, 연락처를 이메일로 보냅니다.



고양군 중면 일산리 621번지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고양소식>을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표지 모델을 모집합니다!

**<고양소식>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소식지입니다.**

고양시에서 가족, 친구, 이웃 등과 함께한  
시민 여러분의 사연을 제보해주세요.  
당첨된 분은 사연과 함께 소중한 추억이  
있는 공간에서 표지 사진을 담아 드립니다.  
당첨자에 한하여 소정의 상품권도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 방법** 이름, 나이, 주소, 연락처, 사연,  
원하는 촬영 장소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이메일** gysosik@naver.com

발행인 고양시장 편집인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에디터 홍보기획팀장 박현각, 주무관 윤정로  
편집위원 김민정, 김은정, 노정민, 오문석, 윤재진,  
이경현, 이암중, 임태성, 정동일, 정현숙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이메일 gysosik@naver.com  
기획·디자인 웨스트코(주)  
발행일 2022년 6월 1일

### 04 슬기로운 고양생활

Q&A로 알아보는 ‘고양원픽’의 모든 것

### 08 특집 환경의 날 ①

기후위기의 비상벨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 10 특집 환경의 날 ②

페트병·캔 저에게 주세요! with 페트병·캔 무인회수기

### 12 특집 환경의 날 ③

온도 내리고, 지구 살리고 도시 소(小)생태계 물순환 시스템

### 14 특집 6·10 민주항쟁

민주주의가 완성된 1987년 6월의 어느 날

### 16 고양툰

폐화본 재생

### 18 은빛바람

우리천살림이

### 22 고양여성공감

늘푸른문화나무

### 24 드림하이

여기 모여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26 로컬 라이프

청송유기농주말농장 신민보 대표

### 28 해피투게더

아나운서 신동진

### 30 고양톡톡

생활복지119 수리전담반

### 32 꽃따라 이야기따라

고양시화 장미 이야기

### 34 고양 핫스팟

풍동 소나무공원 놀이터

### 36 교육플러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우리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 38 건강돌보기

위드 코로나 시대의 한의약 치료

### 40 추천IN고양

함께하는 인문학 여행

### 42 문화공감

6월의 주요 문화행사 소식

### 44 고양계시판

시정, 유관기관, 의정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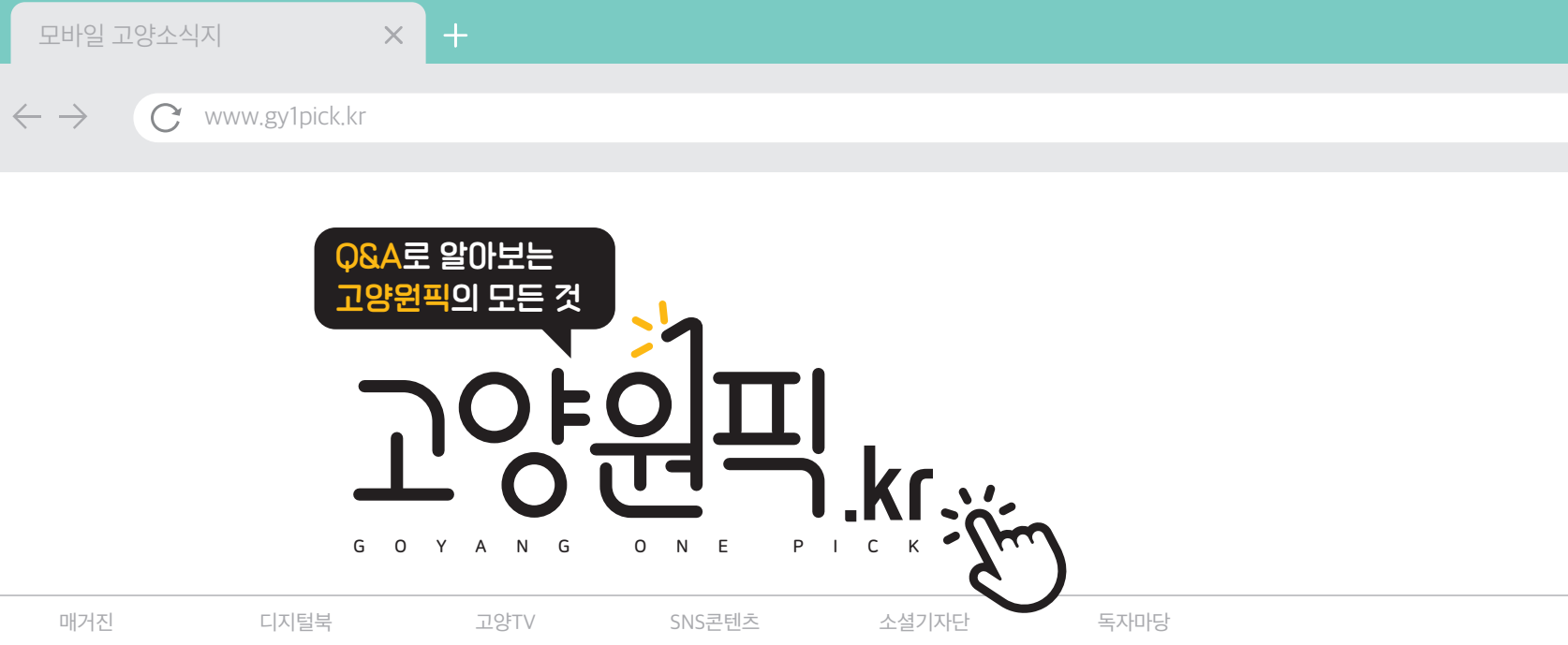
### 47 독자문예마당

벤치에 홀로 앉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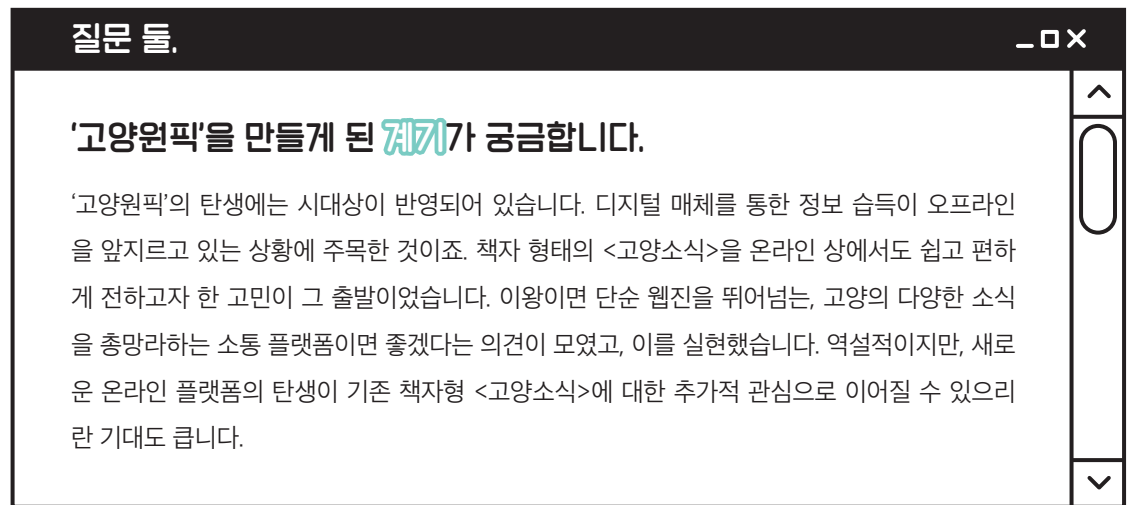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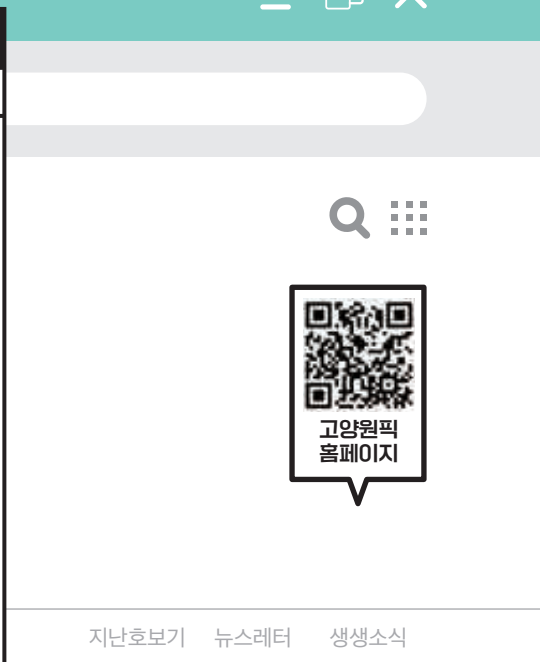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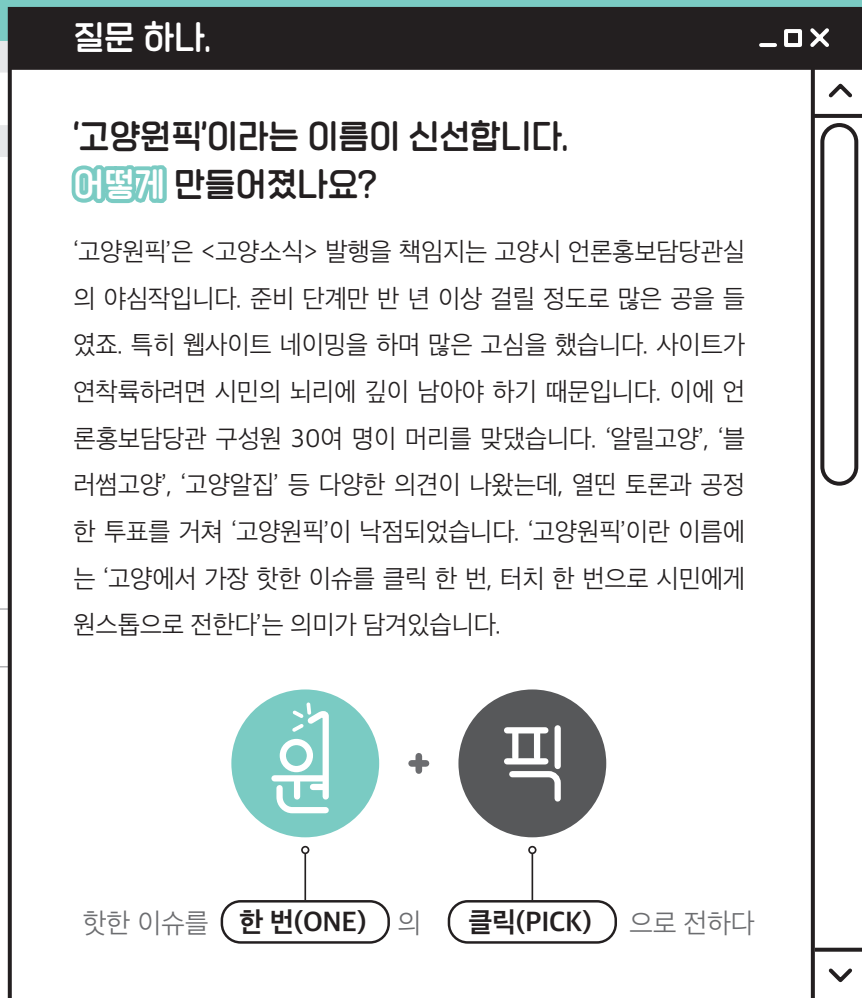
### 48 독자소리함

독자 후기 및 고양 사랑방





바야흐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고양소식>이 세계관을 넓힌다.  
 시공간을 초월해 <고양소식>을 만날 수 있는 웹사이트 '고양원픽'이 6월부터 시민들 곁을 찾아간다.  
 단순한 웹진이 아니다. 지면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온라인 세상에는 특례시로 날아오를 고양의 모든 것이  
 차곡차곡 쌓인다. 그래서 준비했다. Q&A로 알아보는 '고양원픽'의 모든 것.



## 질문 셋.

<고양소식>은 지금도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문제였죠. 접속 경로가 복잡하고, 단순 PDF 다운로드 방식이라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클릭 한 번, 터치 한 번으로 연결되는 ‘고양원픽’ 속 웹진의 가장 큰 특징은 ‘반응형’이라는 점입니다. PC와 태블릿, 스마트폰 등 기기에 따라 최적화된 화면으로 표출되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고양소식>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e-book 형태의 전자책과 올해부터 선보이고 있는 오디오북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디오북은 ‘고양낭독봉사회’와의 협업으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 질문 넷.

‘고양원픽’에서는 **어떤 콘텐츠**들을 접할 수 있나요?

앞서 소개한 <고양소식> 웹진이 대표적입니다. 고양시 유튜브 채널 ‘고양TV’와의 연계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기존 업로드 영상은 물론, 신규로 업로드 된 영상까지 ‘고양원픽’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반응이 뜨거웠던 영상 콘텐츠를 모아 볼 수 있는 ‘해시태그 고양’, ‘기획영상’, ‘브이로그’, ‘LIVE다시보기’ 콘텐츠도 흥미롭습니다. 이밖에도, 고양시 SNS에 업로드 된 정보와 고양시 블로그를 무대로 활약하는 소셜기자단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양시의 한 주간 소식을 담은 ‘뉴스레터’와 시민 피부에 와닿는 실용적인 정보로 구성된 ‘생생소식’ 역시 ‘고양원픽’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고양원픽’이 시민과 고양시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의 ‘원 픽(One-Pick)’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질문 다섯.

새롭게 오픈한 만큼,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고양원픽’은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이트 내 ‘독자마당’ 코너를 구축,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알짜 소식을 전하는 ‘알림마당’, <고양소식>에 원고 및 사진을 기고하거나, 다채로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원고·사진 참여’, ‘이벤트 참여’, 보다 나은 <고양소식>과 ‘고양원픽’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온라인 설문’ 창구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한 <고양소식> 구독 및 변경 신청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여섯.

‘고양원픽’이 **시민에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많은 고민과 준비 끝에 오픈한 ‘고양원픽’이 시민 삶 속 깊숙이 파고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고양원픽’이 시민 모두의 ‘원 픽(One-Pick)’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글. 장성익(작가)

- 서울대 인문대학 종교학과 졸업
- 생태 인문지 <환경과생명>, <녹색평론> 편집주간 역임
- 현 환경과생명연구소 소장, 풀빛출판사 기획위원

## 기후위기의 비상벨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오늘날 기후위기는 지구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오던 질서와 균형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

‘대멸종’이라는 말이 오르내릴 정도로 인류의 미래는 거대한 위협과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기후위기는 종말의 징조일까? 어떻게 하면 위기를 넘어 희망의 문을 열 수 있을까?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고양소식」 6월호는 환경 관련 특집을 기획했습니다.

### 우리 삶이 지속 가능하려면

기상 관측 이래 최고 폭염, 100년 만의 최대 폭우, 역사상 최악의 초대형 산불... 언젠가부터 심심찮게 접하게 된 말들이다. 오늘날 지구촌 최대의 환경 문제가 기후위기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곳곳에서 기후위기를 둘러싼 우려나 경고가 차고 넘친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기후위기의 심각함과 절박함에 비춰볼 때 기이할 정도로 무사태평인 사람이 적지 않다. 왜 그럴까? 기후위기를 ‘나의 문제’로 여기지 않아서다. 지구가 뜨거워진다고들 한다. 그렇지만 이 또한 서서히 진행되기에 내가 피부로 체감하기는 어렵다. 이대로 괜찮을까?

프랑스에서 지난 2021년 7월 통과된 기후 관련 법에서는 고속열차로 2시간 30분 이내 거리, 그러니까 서울-부산 간보다 짧은 거리는 비행기 운항을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비행기가 내뿜는 온실가스가 엄청나서다. 만약 이 법을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한다면 국내에서는 거의 비행기로 이동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은 또, 에너지 낭비가 심한 집의 경우 2028년부터는 임대를 금지한다. 공립학교는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채식 메뉴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 가량이 축산업에서 나오는 탓이다. 유럽연합(EU)은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2035년부터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는 ‘탄소국경세’라 불리기도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된다. 유럽으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유럽 역내에서 생산한 것보다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성격의 추가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분야인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부터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위에 열거한 예는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책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

는다. 이런 일을 하려면 큰 비용과 수고가 든다. 오랫동안 길들여진 기존의 산업과 에너지 구조, 생산과 소비 방식, 사람들의 생활습관 등을 바꾸는 일이 쉬울 리 있겠는가. 그런데도 그 힘든 길을 가려는 이유는 단순명료하다. 살기 위해서다. 우리의 생존과 삶을 온전히 이어가려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알다시피 기후위기의 티핑포인트는 1.5℃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을 더 늦기 전에 1.5℃ 이내로 막아야 한다. 지금까지 이미 1.09℃ 올랐다. 1.5℃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 ‘종말’이 아닌 ‘희망’을 위하여

이 ‘최후의 방어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극단적인 기후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일상화될 것이다. 기후 난민 급증, 식량 및 물 부족 사태, 폭염 등으로 인한 더위 질환자 증가, 전염병 확산, 바닷물 수위 상승, 해류와 바닷물 성분 변화, 수많은 생물의 멸종 등의 사태가 세계 전역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나게 된다. 특히 식량과 물 부족, 기후 난민 문제 등은 여러 나라가 얹힐 수밖에 없어서 국제적 분쟁이나 전쟁을 초래할 위험도 크다. 바야흐로 기후위기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시대인 것이다. 기후위기는 딴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별세상 이야기도 아니다. 재난이 일상사가 되면 그 영향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기후위기가 ‘나의 문제’인 까닭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는 것은 괜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삶을 향한 방향을 찾기 위해서다. 안타깝게도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기후위기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는 있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회복과 재건의 길로 나아갈 돌파구를 뚫을 수도 있다. 우리는 과연 전대미문의 기후 재앙을 종말이 아닌 희망에 관한 이야기로 바꿀 수 있을까?



# 쓰레기가 자원이 된다구요?

## 페트병·캔 저에게 주세요!

with 페트병·캔 무인회수기



www.superbin.co.kr

위치  
일산동구 중앙로 1271-1

문의  
☎ 1600-6217



그동안 음료수를 마시고 페트병이나 캔을 그냥 버렸다면 이제는 돈으로 돌려받자.  
재활용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환경보호 실천법이다. 여기, 자원순환도  
실천하고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1석2조의 ‘페트병·캔 무인회수기’를 소개한다.

### 똑똑한 재활용 수거 로봇

‘페트병·캔 무인회수기’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페트병과 캔을 분리수거 하는 자원순환 회수 로봇이다. 500ml부터 2ℓ 페트병까지 회수 가능하며, 현금으로 환급이 가능한 포인트도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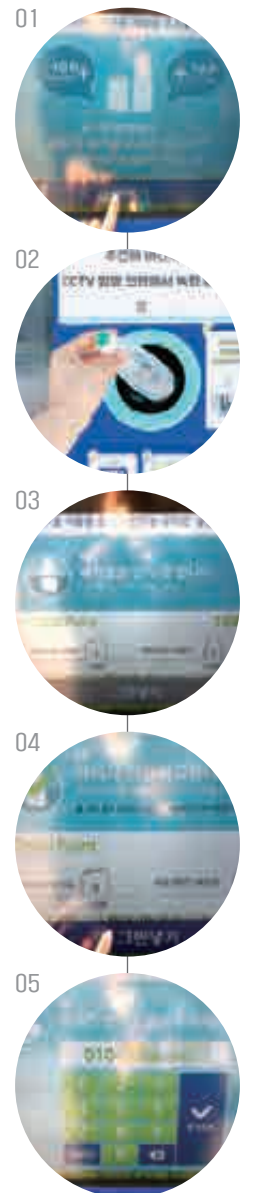
지난 2020년 8월 일산동구 밤가시공원 입구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무인회수기는 지난해 2월 고양관광정보센터로 그 자리를 옮겼다.

사용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라벨을 제거하고 캔과 페트병을 깨끗하게 닦아 준비한다. 이후 화면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회수를 진행하면 된다. 투입구에 넣은 페트병과 캔은 레일을 따라 안쪽으로 이동한다. 투입구를 통해 재활용품이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찌그러지는 소리까지 그대로 들을 수 있어 시각적, 청각적 재미도 있다. 그렇게 압축된 재활용품은 무인회수기가 자동 분류해 압착·보관한다. 분석 과정은 모두 AI가 담당하는데, 재활용품의 외형을 학습하고 축적된 학습 데이터에 따라 분석하는 원리다. 이 과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정확도가 높아진다.

로봇이 수거 과정을 마치면 회수기 화면을 통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또, 슈퍼빈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적립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 2천 포인트 이상 모으면 현금으로 전환 가능하다.

이렇게 회수된 재활용품은 분류작업을 통해 의류나 철근 등의 순환 자원으로 재탄생한다니, 그야말로 쓰레기도 자원이 되는 셈이다.

### [ 절대 넣지 마세요! ]



### 페트병·캔 무인회수기 이용방법

- 01 페트병·캔을 투입하기 전, ‘시작하기’ 버튼 누르기
- 02 라벨이 분리된 페트병이나 캔을 투입구에 넣기
- 03 무인회수기가 재활용품을 인식할 때까지 잠시 대기하기
- 04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구가 뜨면 ‘그만 넣기’ 선택하기
- 05 포인트 적립 화면이 뜨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포인트 적립하기(비회원도 적립 가능)





온도는 내리고  
지구는 살리고

### 도시 소(小)생태계 물순환 시스템

빗물에서 지하수까지, 무심코 흘려보내는 물 자원이 아이디어와 만나  
우리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환경 보호에도 일조하고 있다.  
고양시 곳곳의 지구를 살리는 착한 발자국을 따라가 보았다.

소(小)생태계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물의 다양성을 높이고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간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 서식공간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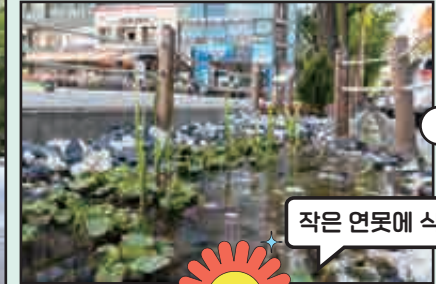
도로가 시원해졌어요~

#### STEP 1

### 쿨링&클린로드 시스템

물순환 시설인 ‘쿨링&클린로드 시스템’은 하루에 배출되는 356t의 지하수를 활용한다. 지하철 3호선 화정역 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살수 노즐이 도로 노면에 지하수를 분사하여 도로 표면 온도를 낮춘다. 지난 2020년 4월 도입한 쿨링&클린로드 시스템은 봄·가을철 일 1회, 여름철 일 4회, 폭염 특보 발령 시 일 최대 10회까지 가동된다.

위치 덕양구 화정로 60 인근



작은 연못에 식물이 자라요~



#### STEP 2

### 고양이 웅달샘

화정문화광장을 가본 시민이라면 한 번쯤은 고양이 웅이 캐릭터를 형상화한 ‘고양이 웅달샘’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고양이 웅달샘은 가로수 식재 구간 내에 위치한 도심 속 자투리 습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협력해 만든 이 웅달샘은 유출지하수를 활용해 토양으로 지하수 재유입을 유도한다. 고양고양이 석상에서 지하수가 나오는데, 부레옥잠 등 수생식물의 생육 환경도 지켜볼 수 있다.

위치 덕양구 화정문화광장



빗물이 따로 저장돼요!

#### STEP 3

### 빗물저금통 보행로

능곡동 행정복지센터 앞 가로수 잔디는 얼핏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사실 비밀을 숨기고 있다. 빗물저금통과 토사층, 잔디매트로 구성된 잔디화단은 빗물의 유출을 줄이는 한편, 화단에 물을 자동으로 공급한다. 빗물을 담아두기만 하던 기존 물탱크 방식과 달리 저장과 순환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빗물저장 용기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만듦으로써 자원순환의 의미를 더해준다.

위치 덕양구 토당로 83





글. 김재원(작가)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강사  
- 팟캐스트 ‘역사공작단’ 패널

민 주 주 의 가 완 성 된

# 1987

## 6월의 어느 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참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독재정권에 맞선 때가 있었다.

서슬 퍼런 군사독재의 끝 무렵,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완성되던 바로 그때,

1987년 6월 언저리로 거슬러 가보자.



출처 : 6월항쟁 사진집  
「80년 5월에서 87년 6월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개헌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게 된다.

민주화의 불길이

서서히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 핏빛 위에 집권한 신군부

1979년 10월 26일 유신의 심장이 멎었던 그때, 신군부 세력은 총과 칼을 이용해 재빠르게 대한민국을 장악한다. 신군부 세력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사회적 통제를 조금씩 완화했다. 이른바 ‘유화조치’다. 1982년에는 야간통행 금지 제도를 폐지했고, 이듬해에는 학생들의 교복과 두발을 자유화하는 조치를 취한다. 더불어 대중의 관심을 정치에서 대중문화로 돌리기 위한 ‘3S(영상 Screen, 스포츠 Sports, 성문화 Sex) 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유화조치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 개최와 시너지 효과를 냄으로써,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 최고 호황이라 불릴 정도로 경제 황금기를 맞았다. 신군부 세력이 취했던 유화조치는 사회 분위기를 일부 이완시켰으나 그것은 허울뿐이었다. 신군부 세력에 반대하는 정치세력과 재야운동은 강력한 탄압을 받아야 했고, 학생운동 세력도 폭력적인 탄압을 견뎌야 했다.

신군부 세력이 만들어낸 ‘일말의 자유’를 맞본 시민들은 더 큰 자유를 원했다. 대통령조차 직접 뽑지 못하는 1980년대 정치 시스템은

너무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정치권이 나뉘었다. 1985년 총선 과정에서 신한민주당(이하 신민당)과 재야세력이 당시 대통령 전두환의 정통성과 비민주성을 비판하며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쉽게 받아들일 신군부 세력이 아니었다.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헌을 유보하며 사실상 개헌 요구를 묵살해 버린 것이다. 이에 신민당 중심의 야당 정치인들은 개헌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게 된다. 민주화의 불길이 서서히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 시민의 힘으로 ‘제6공화국’을 열다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지면서, 여야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 하지만 신군부 세력은 이를 저지하고자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고 용공조작 사건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기에 이른다. 그러던 중 1987년 1월 서울대 학생 박종철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과 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종철 사망 사건으로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운동은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신군부 세력은 시국이 혼란하다는 핑계를 대며 ‘4·13 호헌조치’를 선언한다. 모든 개헌 논의를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하고, 현행 헌법을 유지하는 가운데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다는 내용이다.

그해 5월, 시민들은 호헌철폐와 대통령 직선제를 목표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했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공식적으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출처 : 6월 항쟁 사진

한겨레21 제1166호

「촛불을 만든 6월의 기억」

꺼  
지  
지  
않  
는  
불  
꽃

조작·은폐 사실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여세를 몰아 국민운동본부는 ‘박종철 군 고문 살인·은폐 조작 규탄 및 민주 헌법 쟁취 범국민 대회’를 1987년 6월 10일로 잡는다. 운명의 디데이 하루 전날(6월 9일), 연세대 학생 이한열이 ‘연세인 결의대회’에서 시위 도중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피 흘리며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6월 10일로 예정된 범국민 대회에 폭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6·10 민주항쟁’의 서막이었다. 시위는 거의 전국 모든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야간시위와 철야농성으로도 이어졌다. 뜨거웠던 민주화 투쟁의 열기는 마침내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 조치를 약속하는 ‘6·29 선언’을 이끌어냈다. ‘6.29 선언’은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권한 통제, 국민 기본권이 강화된 현행 헌법 공포로 이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 6월의 어느 날 시작된 시민들의 치열한 투쟁과 피, 땀은 지금의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었다.







# 조조조 맑고 깨끗한 동네 하천 우리 손으로 가꾸어가요

+ 우리천살림이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은빛바람>은 큰 글씨로 표기합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 주변에는 곱디고운 꽃이 피었다. 산책로를 따라 걷기 딱 좋은 계절, 하천을 보살피는 어르신들을 만났다. 한 손에는 집게를, 한 손에는 봉투를 들고 하천 정화에 나선 고양시니어클럽 ‘우리천살림이’ 덕분에 성사천을 거니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한결 가볍다.

## 흐르는

### 성사천 맑은 물 우리가 함께 지켜요

경의중앙선 강매역에서 서정마을 쪽으로 조금만 걸어 내려가면 성사천에 닿는다. 화창한 날씨 덕분에 하천 주변 식물들이 더욱더 푸릇푸릇하게 빛난다. 실제로 성사천은 인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소중한 휴식처이자 산책로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하천 주변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데에는 고양시니어클럽 ‘우리천살림이’의 도움이 크다. 북한산에서 흘러나와 행신동을 거쳐 성사동을 지나가는 성사천에는 A조와 B조로 나뉘어 정화 활동을 하는 삼십여 명의 어르신들이 있다. 월·수·금요일에는 A조가, 화·목·금요일에는 B조가 정화 활동을 벌인다.

평소에는 각 조가 상류와 하류를 구분해서 정화 활동을 하지만, 두 조가 함께 근무하는 금요일에는 중간지점인 공원에서 만나기도 한다. 매일 얼굴 보는 사이는 아니어도, 같은 일을 한다는 공통점이 어르신들의 마음을 하나로 잇는다.



## 일하는 즐거움과 환경을 지키는 보람을 함께

이날은 B조가 정화 활동을 하는 날. 노란 조끼를 입은 어르신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진다. 올해 처음으로 정화 활동에 나선 어르신도 있지만, 회원 중 3분의 2는 5년 이상 정화 활동에 참여해 온 베테랑들이다. 그래서일까. 집계를 들고 정화 활동에 나선 어르신들의 모습에는 어색함이라고는 없다.



## 우리 지역을 가꾼다는 마음으로

‘우리천살림이’의 눈부신 활약으로 성사천 주변이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현재 고양 시니어클럽에서 정화 활동을 벌이는 지방하천은 성사천을 비롯해 대장천, 대화천, 오금천, 장항천 등 다섯 곳에 이른다.

어르신들에게 우리 하천을 가꾸는 일은 봉사 활동으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발 딛고 생활하는 지역을 보살피는 일이기도 하다. 특히 과거 고양군청에서 근무했던 한해수 어르신(화정동, 87세)에게는 나고 자란 고향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천살림이 바로가기

QR코드 스캔 후, 공익활동 항목에서 오른쪽 스크롤을 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6

노년이라고 해서 집에만 있기보다는 밖으로 나와 일을 시작해보세요. 나이가 있어도 몸이 건강하면 일자리를 연결해줍니다. 부담 갖지 말고 구청과 주민센터에 문을 두드리세요.

99



요즘처럼 별 좋은 날이면 정화 활동을 위해 오가는 여정도 마치 산책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거센 비가 지나간 뒷날이면 어디서 휩쓸려왔는지 모를 쓰레기들이 하천 구석구석 정신없이 흩어져 있기도 하다. 그럴수록 ‘우리천살림이’ 회원들은 ‘우리 하천,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더욱더 열의를 갖고 정화 활동을 펼친다. 노년에도 ‘내일’이 있다는 행복은 물론이요,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데 손을 보탠다는 보람까지 느낄 수 있는 까닭이다.



## 우리천살림이

**활동내용** 고양시 지방하천 수질 개선 및 하천 정화 활동  
**활동지역** 고양시내 하천  
**활동시간** 월 30시간, 월 10회, 일 3시간

“먼 옛날에는 한강제방이 없어 행주동 일대에 물이 차기도 했죠. 지금 주교동이 있는 배다리 주변을 맨발로 건너다니기도 했어요. 하천을 시민들의 쉼터로 관리하니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고양시 지방하천은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이에요.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요.” 한해수 어르신은 성사천 B조 반장으로 4년째 활약하며 고양시 지방하천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우리천살림이’에 동참하는 다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다. 어르신들의 발걸음과 손끝마다 어린 지역사랑 덕분에 고양시 하천을 걷는 길이 더욱 즐거워진다.



# 밥 할머니도 인왕산 호랑이도 인형극으로 만나요

+ 늘푸른문화나무

할 것 많고 볼 것 넘치는 요즘에도 옛날이야기가 통할까?  
 인형극으로 지역의 역사 이야기를 전하는 ‘늘푸른문화나무’와  
 만나보면 이런 생각이 바뀐다. 지역 이웃에게는 문화서비스를,  
 문화예술인에게는 일자리를 나누는 이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활동** 역사 설화 인형극 : 고양시 역사 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인형극 소개  
 인형극 공연 : 건강 인형극, 여성인형극, 체험형 인형극  
 인형극 교육 : 소품으로 만드는 인형극 놀이

**문의** ☎ 031-916-2066

**주소**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로 50번길 11-32 제1호



## 인형극으로 만나는 지역 이야기

한때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이야기가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콘텐츠였다.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옛날이야기가 전해졌다. 늘푸른문화나무의 인형극은 마치 어린 시절 어르신들로부터 듣던 옛날 이야기 같다. 다양한 역할의 인형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이며 전하는 이야기는 요즘 아이들의 시선도 금세 사로잡는다.

이날도 단원들은 일산의 한 복지관에서 ‘육지로 간 자라’를 주제로 환경 인형극을 공연했다. 이야기에 교육적 메시지를 접목한 공연은 주입식이 아니어서인지 더욱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전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그동안 소규모나 영상으로만 이뤄졌던 현장 인형극이 이제는 코로나19 이전의 활기를 되찾고 있는 분위기다. 다양한 이야기를 소재로 공연을 펼치지만 그 중에서도 주요 레퍼토리는 ‘밥 할머니’, ‘효자 박대성과 인왕산 호랑이’, ‘공양왕과 삽살개’ 등 지역 이야기에 기반을 둔 인형극이다. 구성원 모두가 고양시민으로 이루어진 늘푸른문화나무는 지역 이야기를 이어간다는 즐거움과 사명감으로 무대를 만드는 중이다.

## 지역 사회공헌을 실천하며

늘푸른문화나무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경숙 대표는 고양문화원에서 어르신 인형극단 양성교육 강사로 참여했는데, 당시 인연을 맺은 시니어들의 활동무대를 만들고자 창업을 결심한 것. 현재 시니어는 물론 인형극에 관심 있는 젊은 세대까지 공연에 동참하며 세대를 초월한 동료애를 나누고 있다.

66

교육을 했던 2013년부터 지금까지 9년을 함께했습니다.  
 그때 공연했던 단원들이 지금도 활동하며  
 소중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어요.

99

무대 뒤에서 인형을 들어 올려 공연을 하려면 체력 또한 만만치 않게 필요하다. 60대가 넘는 단원들이 여럿인데도 이들은 지치는 기색 없이 매번 최선의 열정을 쏟아낸다. 단원들은 앞으로도 큰 보람을 공유하며 오래 활동하고픈 바람을 전했다. 단원의 자격조건은 ‘인형극에 대한 관심’. 첫 마음을 놓지 않고 열정을 이어가는 늘푸른문화나무의 활약을 응원한다.





특별한 체험하고 싶은 사람

## 여기여기 모여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고양시에는 청소년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있다.

방과 후, 특별한 활동을 찾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곳으로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한다.



일산서구  
청소년수련관



주소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586  
문의 방과후아카데미팀 ☎ 031-995-4192

### 꿈을 심어주는 특별한 활동

고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라온꿈터)는 총 40명으로 이뤄진 2개 반을 운영하고 5개 활동을 지원한다. ▲스토리텔링, 영어, 창의 수학 등을 지도하는 ‘학습지원’, ▲요리, 진로, 코딩, 칼림바 등의 ‘체험활동’, ▲야외체험 중심의 ‘주말체험활동’, ▲2박 3일 캠프, 부모교육 등의 ‘특별지원활동’, ▲간식, 급식, 귀가 차량 지원하는 ‘생활지원활동’ 등이 있다. 각 활동들은 아이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한편, 창의적 사고와 상상력을 키우며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도 요리 활동은 단연 인기가 많다.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정식을 만들며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는 시간이다. 이날 진행된 아카데미의 프로그램은 마침 요리활동이었다. 조리대 앞에 아이들이 모이자 선생님의 설명과 함께 수업이 시작되었다. 오늘의 요리는 ‘로제 파스타’. 어느 정도의 크기로 재료를 손질해야 하는지, 면을 언제까지 삶아야 하는지 등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설명이 이어졌다. 손을 닦은 아이들은 양송이버섯, 피망, 방울토마토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한 입 크기로 썰어냈다.

서툴던 아이들의 칼질은 몇 차례 수업을 거치면서 제법 숙련된 칼질로 바뀌었다. 위험하게만 느껴던 불의 강약 조절도 이제는 두렵지 않다. 점차 완성되어 가는 요리에 자신감 한 스푼, 뿌듯함 한 스푼을 곁들이니 최고의 요리가 탄생했다.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가느라 바쁜 요즘, 오늘도 아이들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을 키워가는 중이다. 더 넓은 세상을 꿈꾸는 이곳에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 [ 2022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간표 ]

#### 4,5학년

항목	월	화	수	목	금
1교시 (15:30 ~ 16:20)	독서 활동	창의수학	동아리 활동	스토리텔링 (국어)	미술
2교시 (16:30 ~ 17:20)	코딩	칼림바		영어	풋볼
3교시 (17:30 ~ 18:20)		숙제 및 자기주도 학습	진로	숙제 및 자기주도 학습	보드게임
4교시 (18:20 ~ 19:00)	저녁식사(급식제공)				
5교시 (19:00 ~ 19:30)	귀가지도				

#### 6학년

항목	월	화	수	목	금
1교시 (15:30 ~ 16:20)	숙제 및 자기주도 학습	숙제 및 자기주도 학습	동아리 활동	독서활동	보드게임
2교시 (16:30 ~ 17:20)	요리	창의수학		스토리텔링 (국어)	미술
3교시 (17:30 ~ 18:20)		진로		칼림바	영어
4교시 (18:20 ~ 19:00)	저녁식사(급식제공)				
5교시 (19:00 ~ 19:30)	귀가지도				

※ 매 수업 시간 사이 10분간 휴식 시간

※ 수업내용은 하반기 청소년의 만족도를 반영한 후 변경될 수 있음

### Mini interview



#### 안다현(일산초 6학년)

칼을 사용할 때 어렵고 서툴지만,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요리에 대해 많이 알게 된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 오윤서(신일초 6학년)

여러 가지 재료가 하나의 음식이 된다는 게 무척 신기해요. 부모님께도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환경을 생각하는 농사를 짓습니다

청송유기농주말농장 신민보 대표

‘밥이 보약이다’ 라는 말이 있다. 바른 먹거리의 중요성을 함축한 것이리라.  
여기, ‘자연과 사람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오랜 시간 바른 먹거리 만들기의 외길을 걸어온 농부가 있다.  
유기농만을 고집해온 지 어언 29년, 신민보 대표의 노력은 이제 그 결실을 톡톡히 맺고 있다.



### 유기농법을 지키는 주말농장

청송유기농주말농장은 오직 천연유기물과 햇살, 물만으로 작물을 키운다. 주말농장을 유기농법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민보 대표는 부단히 노력했다고 한다. 3년 이상 농약, 화학비료 등을 1회도 살포하지 않아야 유기농 인증이 발급되기 때문이다. 신 대표는 직접 농사지는 유기농 벼짚을 소에게 먹이고 그 배설물로 퇴비를 만든다. 모종, 농자재 등 농사에 필요한 재료도 유기농으로 관리한다.

신 대표가 직접 기르는 농산물 역시 친환경 농법의 대표주자인 ‘왕우렁이농법’을 이용한다. 왕우렁이를 투입하면 제초제 사용 없이 잡초의 98%가 제거된다고. 다만, 외부로 유출되면 생태계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커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렁이의 활동기간을 자주 살펴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있지만, 그는 남다른 부지런함으로 친환경 농산물 수확에 정성을 쏟고 있다.

### 도구부터 교육까지 제공되는 초보 농부 배움터

청송유기농주말농장은 초보 농부를 위한 친절한 배움터다. 매년 신규 회원이 들어오면 사전 교육을 통해 농기구 안전 사용법, 전문 농사꾼의 비결 등 신 대표만의 방법을 전수한다. 또 호미, 장갑, 장화 등 농사에 필요한 모두 도구는 농장에서 제공되는 만큼, 장비에 대한 부담도 없다. 농사 절기에 맞게 해야 할 작업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고할 만한 샘플 텃밭을 보며 그대로 따라 해도 좋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놀이시설에 가기 힘든 요즘, 이곳은 아이들과 함께 텃밭 농사를 짓기에 안성맞춤인 농장이다. 농장에 들어선 아이들은 자연을 놀이터 삼아 자유롭게 뛰어논다. 모내기, 떡 메치기, 벼짚 꼬기와 같은 체험도 즐길 수 있어 방학 기간 방문하는 가족 회원들이 많다.

66

저의 농사 철학은 ‘미래에서 잠시 빌린 땅이니 잘 사용해서 돌려 주자’입니다. 앞으로도 유기농법을 사용해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과 건강한 먹거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99

초보 도시농부들도 농사에 도전할 수 있다고 응원의 말을 전하는 신민보 대표. 그의 우직한 일상과 정성 어린 손길이 닿은 농장이 올 가을에도 너른 황금 벌판으로 보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말에 담은 진심으로 마음에 다가서다

아나운서 신동진

부드러운 목소리에 또렷한 발음, 25년 동안  
공영방송 MBC에 몸담았던 아나운서답게  
신동진의 첫인상은 음성으로 먼저 각인된다.  
말 한마디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깊이 알았던 그가  
방송국을 나와 새로운 출발선에서 뛰고 있다.

### 프로 방송인의 새출발

그에게 MBC는 마음의 고향이었다. 1996년 입사 후 2020년  
 명예퇴직하기까지 25년을 한곳에서 머무른 것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는 오래 몸담았던 일터에서 정년까지 지내  
리라 여겼다. 하지만 직장인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보고 싶은 생각도 마음 한 켠에서 꿈틀대기 시작했다.  
늦둥이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도 새 출발을 결심하  
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2020년 12월 31일부로 MBC를 퇴사하고 프리랜서  
아나운서 활동을 시작했다. 감사하게도 이듬해 1월부터 국회  
방송과 EBS 등에서 뉴스 진행을 비롯한 프로그램을 맡았다.  
덕분에 안정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아이와 더 긴밀하게 시간  
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흔히 육아는 체력전이라고 하지만,  
젊은 아빠 못지않게 아들과 몸으로 놀아주는 일도 잊지 않는  
다. 5월에 두 돌을 맞은 아들은 ‘아빠 바라기’로 무력무력 자  
라는 중이다.



### Profile

- 1996년 문화방송(MBC) 입사
-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 역임
- 국어문화 발전 기여 공로로  
2008·2014·2018년 문체부장관상 수상
- 2018년 대한민국 아나운서대상 장기범상 수상



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개회식

### 고양시와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을 시작하며 또 다른 변화도 생겼  
다. 2년 전, 고양시로 거처를 옮겨 고양시민이 된 것이다. 신  
아나운서는 고양시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  
을 보내고 있다. 고양시에 자신의 이름을 건 스피치아카데미  
를 오픈했다. 올 봄에는 고양시민대학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회의 진행스킬 UP 강의’를 진행한 데 이어, ‘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개·폐회식의 사회도 맡았다.

66

시민강사 1호로 주민자치회 분들에게  
스피치 강의를 진행했어요.  
흔하지 않은 경험이라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고양시에서 의미 있는  
기획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도 의욕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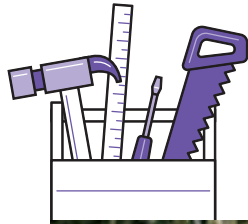
99

요즘은 「내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 365」 프로그램 준비에 한창  
이다. 고양시민과 지역 어르신, 이주민 등이 참여하는 이 프로그  
램은 각자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구성하여 15분간 스피치 하는  
방식으로 꾸려진다. 이를 위해 손수 수업자료도 만들었다. 말하  
기 전문가로서 교육에 담고 싶은 핵심은 ‘진정성’이다. 방송인처  
럼 발음이 또렷하지 않아도, 말을 통해 소통하고 싶다는 마음이  
짐이 있다면 청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신 아나운서  
의 지론. 아나운서 본연의 활동을 이어가면서 고양시민을 위한  
스피치 강의에도 정성을 쏟는 그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어려운 이웃의 생활 속 작은 불편

## ‘고양똑딱’이 해결해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인 전구 교체나 못 박기도 어떤 이에게는 큰 일이 될 수 있다. 여기, 어려운 이웃의 소규모 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수리 지원 서비스 ‘고양똑딱’이 있다. 현장에 나서는 고양똑딱 수리전담반을 만나 그간의 활동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왼쪽부터 수리전담반 신동근 씨, 박성진 씨



- 01 ——— 취약계층 가정 내 소규모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수리 지원
- 02 ——— 한 가구 당 1년에 3회 이내로 신청
- 03 ——— 공사비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 건물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 등은 서비스에서 제외

문의 고양시 민원콜센터 ☎ 031-909-9000



### 작은 고장, 이제는 문제없어요

조명 교체, 배관수리, 단열재 부착, 방역…. 수리해야 하는 것들이 많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데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다. 하지만 이제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도, 한부모 가족도 안심하고 집안의 사소한 고장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생활 속 작은 고장이나 불편사항을 혼자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고양똑딱’ 서비스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고양똑딱’은 작년에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올해 초 본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대상은 고양시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전구나 전등 교체, 수도꼭지나 샤워기 교체, 출입문 경첩이나 방충망 보수 등 생활하며 부딪히는 사소한 불편을 전담반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해결해준다.

현재 활동 중인 전담반은 두 팀. 고양시 담당자와 함께 3인 1조로 신청 세대를 방문해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대상자에 한함)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사전방문을 거쳐 이후 수리작업이 이뤄진다.

### 66

현장에 가보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홀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에 어르신이 고맙다고 인사를 전해주시면 감사하면서도 안쓰러운 마음도 듭니다. 앞으로도 주위를 살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손길을 전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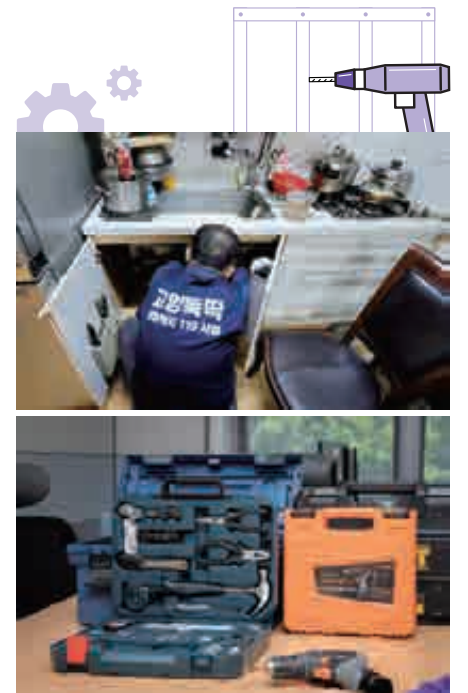
### 99

### 나의 손길이 다른 이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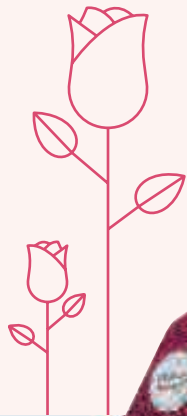
“보수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고양똑딱의 서비스 범위는 넓다. 전기, 냉·난방, 안전·위생, 소규모 수리 등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활 불편 전반을 다룬다. 얼핏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취약계층에게 난감했던 부분을 해결해주어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

사전교육과 경보수 훈련을 거쳐 전담반에 참여한 활동가 신동근, 박성진 씨는 현장에서 수리하며 느끼는 보람이 크다고 말한다.

현재는 2개 전담팀이 한 달 평균 80~90건의 수리를 해결하고 있다. 두 사람은 “아직 고양똑딱을 모르는 이웃들이 많다”면서, “고양똑딱을 통해 보다 많은 이웃들의 삶에 불편함이 사라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2022 고양국제꽃박람회 야외전시



고양시청 담벼락에 핀 장미



**고양 1호**  
꽃잎 수가 약 49잎 정도  
겹꽃으로 생육이 왕성하며  
삽목(挿木, cutting) 번식이  
용이하다.



**고양 레이디**  
2022년 화훼산업대전  
신품종으로 절화수명이  
길고 월동이 가능하며  
정원용으로 활용도가 높다.



일산호수공원 장미원 앞

시화(市花, County Flower)는 시(市)에서 대표하는 것으로 지정한 꽃이다.  
고양특례시 상징 중 시화는 장미다. 많은 꽃 중, 여왕이라고 불리고 있는  
장미를 왜 시화로 선택했을까?

## 고양시화 장미 이야기

글. 윤재진(고양소식 편집위원)  
- 홍익대학교 광고홍보학 박사졸업  
- 이케바나 오히라류 준교수

자료. 고양시농업기술센터



### 고양특례시화 장미

1990년 3월, 일산 신도시 건설이 시작되었다. 이후 택지 개발지구가 추가로  
발표되면서 1992년 2월 고양시로 승격하였다. 지리적 특성상 재배면적이 국  
내 최대 규모로 농민들 삶에 희망을 주었던 장미가 시화로 선정된 이유다.  
여전히 이 장미를 고양특례시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다. 관내에서 많이 가꾸고  
있다는 말은 고양시 토지와 기후 등 장미가 잘 자랄 수 있는 요소와 맞는다는  
말일 것이다.  
장미가 가진 물리적 성질 장점과 색마다 가진 고유의 꽃말은 고양 시민상을 대변  
한다. 장미의 다양함은 무궁한 지혜를 가진 고양시민상을 표현하며 사계절 아름  
다운 전원도시로 고양특례시를 상징한다. 고양시청 지하 주차장 입구 벽면에는  
시민상을 대변하는 장미를 오월부터 만나 볼 수 있다.



### 사계절 아름다운 고양특례시

장미(薔薇, Rose)는 아름다움과 사랑을 상징하는 꽃이다.  
한자는 장미 장(薔)에 장미 미(薇)로 글자 그 자체로 장미다.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장미는 서양 장미와 중국산 야생 장  
미 사이에 개량하고 육성한 것이다. 지금까지 2만 5천 품종  
이 개발되어 현존하는 것은 대략 6~7천 품종이며 해마다 2  
백 품종 이상의 새 품종이 개발되고 있다. 흰색, 붉은색 노란  
색, 분홍색 등 형태, 모양, 색이 다양하고 아름다우며 좋은 향  
기가 난다.  
이 사랑의 장미가 사계절 내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고양  
화훼농가와 고양시농업기술센터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장미 육종 연구를 거듭한 결과 2010년 국산 품종인 ‘고양 1  
호’ 신품종 장미 개발에 성공하여 국립종자원에 등록하였다.  
현재는 27개 품종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2022년 국제꽃박람회 화훼산업대전에서 고양 레이디  
(Goyang lady), 밀라르고(Milargo), 그리니아(Greenia) 품종  
은 올해 화훼산업대전에서 호평을 받았다.

### 장미의 다양함, 고양을 상징하다

장미는 관습적으로 사랑을 의미하는 기호로 사용하고 있지  
만 다의적인 의미를 지닌 상징이다.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에서 장미는 소중한 여성을 상징한다. 어린 왕자는 다른 별에  
가서 오천 송이나 되는 수많은 장미를 보고 나서야 자기 별에  
두고 온 한송이 장미를 가장 소중하다고 느낀다.  
움베르토 에코 《장미의 이름: The name of the Rose》  
(Umberto ECO, 1980)에 있는 이 장미 단어도 다의적인 의미  
를 지닌 상징이다. 상징(象徵, Symbol)은 사물을 전달하는 중  
간에서 양편의 관계를 맺어 주어 작용한다. 영어 발음 그대로  
심벌이라 부르고 그리스어 심볼론(Symbolon)이 어원이다.  
오늘날 심벌은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전체를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상징이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의미는 추락한다. 또한 상대방에  
게 실망과 소통 역할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상징은 우리 삶에



중요한 소통 도구다. 상징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안목  
없는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한 불성실한 태도와 생각을 말하  
고 보여 줄 때다. 고양시 모든 분이 고양시 상징이다. 그러니  
《장미의 이름》처럼 진정한 의미의 상징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안목을 잃지 않으려고 끊임  
없이 개선하여 옳은 방향으로 실천해야 한다.  
옛말에 시운(時運: 시대나 그때의 운수)에서 지난해가 절호  
(絶好: 무엇을 하기에 기회나 시기 따위가 더할 수 없이 좋음)  
의 한 해였다면 올해는 꽃의 개화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  
다고 했다. 고양시민 모두 힘들었지만 파란색 장미의 꽃말처  
럼 기적 같은 사랑으로 앞으로 절호가 찾아오리라 믿는다.  
오늘 고양특례시 시화인 장미를 선물해 보는건 어떨까.



**그리니아**  
줄기 가지 수가 매우 적고  
중륵형으로 화형이 예쁘며  
수량이 많아 농업 생산성  
이 우수하다.



**밀라르고**  
꽃꽂이에 용이하고 병해충  
에 강해 농업 현장에서 선  
호하는 품종이다.



**메이퀸**  
꽃 색깔이 예쁘고 병충해  
에 강한 품종으로 꽃이 평  
균보다 10% 더 달리는 편  
이다.



**퍼플글로리**  
스프레이 장미로써 화색은  
은은한 보라색을 띤다. 조  
경용, 분화용으로 활용 가  
능성이 큰 품종이다.





## 창의성, 놀면서 키우는 거 아냐? 풍동 소나무공원 놀이터

아이들은 뛰어놀면서 크고 배운다. 그런데 놀이터가 있으면 뭐해? 아이들이 놀지 않는데.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놀이터는 외면당하기 마련.  
그런데 풍동 소나무공원 놀이터에는 아이들의 환호성으로 가득하다.  
지나치다 쓱 보기만 해도 미소 짓게 되는 풍동 소나무공원 놀이터로 출발~.

글. 김은정(고양소식 편집위원)

### 어린이 코드와 짝짜꿍

어린이들은 뛰어놀면서 지능을 개발시키고, 친구들과 사회성을 키운다. 즉, 노는 것이 공부라는 얘기. 그런데 요즘은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 황사, 미세먼지 같은 환경적인 요인 및 스마트폰, PC 게임의 영향도 있겠지만 기존의 놀이터가 요즘 아이들과 짝짜꿍이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풍동 소나무공원 어린이놀이터는 ‘아이들과 짝짜꿍이 맞는 놀이터’로 탈바꿈해 지난 4월 30일 다시 문을 열었다. 풍동 소나무공원 어린이놀이터가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주민들의 의견에서 비롯되었다. 불만족의 이유는 놀이시설의 노후화, 공간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꼽혔다. 놀이터의 주된 이용고객은 어린이다. 소나무공원 어린이놀이터의 변화는 인접한 풍산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의견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다양한 의견 중 시선을 사로잡은 건 ‘도전정신이 샘솟는 스펙터클한 놀이기구’를 요구한 원예림 학생의 아이디어였다. 바닥을 보면서 건너갈 수 있는 흔들다리와 트위스트 각도가 월등히 큰 미끄럼틀을 원했고, 암벽등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 개장 첫날부터 대박

놀이터를 실제로 이용하는 어린이와 학부모를 비롯한 주민들의 의견을 두 차례 경청한 후 만든 풍동 소나무공원 어린이놀이터는 개장 첫 날부터 초대박이었다. 대박 이유는 사방팔방으로 움직이는 바구니그네, 바닥에서 공중으로 이어진 콤보박스, 스펙터클한 회전각도의 미끄럼틀, 암벽등반 등의 놀이기구였다. 웅했던 다목적 공간은 인라인스케이트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트랙과 인조잔디 어린이 축구장으로 분리시켰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놀이공간과 트랙의 지면은 완전한 안전 턱으로 분리시켰지만 공중은 흔들다리로 연결시켜서 아이들에게 멀티플렉스. 콜라보레이션 개념을 놀면서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 어른들을 위한 운동기구를 아파트 단지 쪽으로 옮겨서 거주 주민들의 소음민원도 줄일 수 있도록 신경 썼다. 안전검사도 모두 완료하여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한 배려도 돋보인다. 이번 주말에는 아이들과 손 잡고 풍동 소나무공원으로 가보는 것은 어떨까.

### 놀이터 이용법 꼭! 읽어주세요

- 01 — 어린이를 위해 설치한 놀이기구이므로 어른의 사용을 금합니다.
- 02 —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사용합니다.
- 03 — 질서를 지키고, 놀이기구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 04 — 가방 끈, 줄넘기 등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 05 — 어린이놀이터 내 모래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 Mini interview



놀이터의  
미끄럼틀을 그린  
풍산초등학교  
원예림 학생

66

### 놀이터를 본 소감은?

머릿속에 있던 생각이 현실이 되니까 신기하고 부듯합니다. 특히 놀이기구 중에 역동적으로 탈 수 있는 ‘익스트림 미끄럼틀’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 놀이터를 한 단어로?

놀이기구나 체험시설이 다양해 일곱 빛깔이 하나로 어우러진 무지개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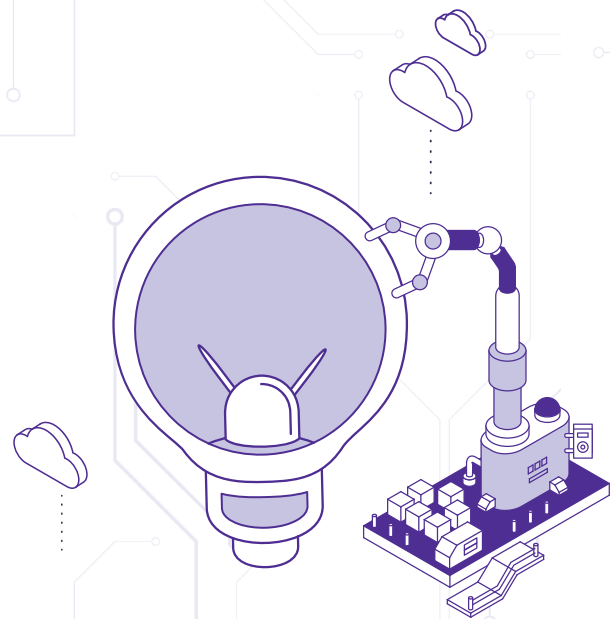
위치 일산동구 풍동 1287번지



#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우리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코로나19로 우리의 삶 그리고 교육  
현장은 참 많이 달라졌다. 2020년  
전 국민 AI·SW 교육 확산 방안이  
발표되었고, 교육청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글. 안셋별(독산고등학교 교사)



## 교육 플랫폼의 변화

온라인 개학 시기에 많이 사용된 대표적인 플  
랫폼에는 EBS 온라인 클래스와 구글의 클래  
스룸이 있다. 이전의 단방향의 수업 자료만 제  
공하던 방식과 달리 교사와 학생이 소통하고  
LMS(학습관리) 기반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한  
다. 지식 전달에서 끝이 아니다. 실시간 쌍방  
향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한다. 퀴즈, 토  
론 과제 등을 통해 학생들 간에도 의견을 나누  
고 사고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 개별화된 과  
제 제출과 피드백 제공 등 **학생 개인의 학습**

**과정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의 변화는 시대가 요구하는 역  
량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 우리 학생, 자녀들  
에게는 암기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다. 실생활  
속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활용하여 타인과 또는 인공지능과 협  
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  
하다. 역량을 길러가는 과정 속에서도 호기심  
과 사고력,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그 무엇  
보다 중요하다.



## 배움의 주인공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교육의 필요성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PWC에 따르면, 소프트  
웨어를 만들고 응용하는 일자리는 지속해서  
창출되며, **소프트웨어 역량 준비가 미흡할 경  
우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모두를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개발자로  
길러내기 위해 미래 교육, 코딩교육, 디지털  
문해력(Literacy) 함양, 정보교육이 중요하  
다는 것이 아니다. 모든 학생들이 많은 직업에서  
접하게 될 소프트웨어 세상을 이해하고, 소프  
트웨어를 융합한 문제 해결 역량을 최대한 함  
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협업의 경험 쌓기

긍정적인 협업의 경험을 통해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의사소통 역량,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키워야 한다.



## 디지털 기기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지나치게 오래 사용하지는 않는지,  
늦은 시간까지 사용하지는 않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규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 코딩 공부는 쉬운 언어로 배우기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는  
스크래치, 엔트리 등과 같이  
레고 블록을 맞추는 느낌의 직관적이고  
시각적인 블록코딩이 적당하다.  
이후에는 데이터 과학, 딥러닝 등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파이썬을 배워두면 유용하다.

66

지금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우리 삶에 이미  
깊숙하게 파고들어 있으며,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다.  
인간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면이 있는  
인공지능과 우리가 협업하고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준비해 가야 한다.

99



## 비판적 사고력 함양하기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실제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바탕으로  
해결해보는 경험을 쌓아야 한다.



## 위드 코로나 시대의 한의학 치료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상에서의 건강관리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  
<고양소식>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의료진과 함께 의학칼럼 코너를 마련,  
독자 여러분께 유용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주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한의학 치료’다.

### 코로나19 방심은 금물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바이러스 첫 감염 환자가 발표되는 순간에만 해도, 2년이 넘도록 팬데믹 감염 상황이 지속되고 매일 새로운 감염자가 수십만 명에 이를 줄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제약사들은 역사 이래로 가장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했고,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3회씩이나 접종하는 전대미문의 경험을 하기도 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고 일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은 이래 점차 줄면서,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끝이 보이고 서서히 회복의 길로 접어드는 것으로 판단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하거나 방심하기에는 이르다. 분명한 점은 코로나19 감염은 어떤 이에게는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질병이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피로감, 식욕부진, 막연한 통증,

호흡곤란, 잔기침 등을 상당 기간 겪게 하는 여전히 위험한 전염병이란 것이다.

전문치료제나 감기약을 복용하면 대부분 2~3주 내에 증상이 완화되고 전염력이 사라진다. 하지만 음식 맛을 모르고, 냄새를 맡지 못하는 등 남아 있는 후유증은 막연한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변함없는 사실은 코로나19 감염이 여전히 독감보다는 치명률이 더 높다는 견해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 의식 속에서 개인위생관리와 면역기능에 대한 주의는 지속해야 한다.

### 면역력 개선하는 맞춤 치료 병행

‘롱 코비드(Long Covid)’로 불리는 코로나19 감염 회복 후의 후유증 지속 상태는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한의학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후의 몸의 상태를 폐장과 비장의 기력과 진액이 부족한 상태와 이로 인한 허열(虛熱)이 남아 있는 상태로 나눠 파악하고 있다. 특히 봄철에는 겨우내 움츠렸던 생리기능이 활발해지면서 기력과 진액의 소모가 더 많아진다.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앓고 회복되면 기력과 진액의 결핍으로 인한 증상 등이 질병의 후유증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평소에 앓던 질환이 있거나 연세가 높은 분들이 더 현저하게 느끼게 된다.

단순히 면역력을 개선하는 보약을 복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어서 한의학에서는 기력과 진액을 보충하는 관점과 맞춤형 증상관리를 병행하는 치료를 적용한다.

우선 기력과 진액의 보충을 위해 인삼, 사삼, 맥문동, 숙지황, 자하거 등을 위주로 한 처방과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자 백출, 사인, 후박, 맥아 등을 포함한 처방을 진행한다. 아울러 기침, 체중감소, 식욕부진, 피로, 월경불규칙, 미열감, 후각 및 미각 장애 등 개인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잔존 증상에 따른 맞춤형 대증 처방을 진행한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약치료로 후유증 개선 효과

경옥고와 공진단은 대표적인 일반보양제로 감염 후의 피로감과 식욕부진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 소건중탕은 쌍화탕 구성 약물에 단백질(콜라겐)과 당분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아교와 교이를 넣어 구성한 처방이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행을 개선하며 완만하게 기력을 보강하여 어린이나 노인분들의 코로나19 감염 후 체력 저하나 막연한 신체 통증 개선에 효과적인 처방이다. 진해고, 맥문동탕, 생맥산 등은 폐의 진액과 기(氣)를 보충하는 처방으로 기침이 후유증으로 지속되거나 숨이 찬 증상이 남았을 때 투여할 수 있다. 이들 약물의 통상적인 복용 기간은 증상의 심한 정도와 기초체력 및 연령을 고려하여 1주에서 4주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한약치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후의 후유증을 관리하지만 침치료와 부항치료는 전신의 기혈(氣血)을 고르게 회복시키고, 막연한 결림과 통증, 피로감, 소화장애, 수면장애 등에 효과적이다. 침과 한약의 효과를 결합한 약침 치료 역시 뚜렷한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글. 김동일(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여성외과 교수)  
現 대한한방부인과학회 학회장  
現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여성외과과장  
現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





생각이 쑥쑥! 한눈에 쑥쑥!

## 함께하는 인문학 여행

다채로운 인문학 프로그램이 시민들을 기다린다.

올해 고양시 지역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인문학 프로그램은 한국 문학사, 신화, 서양미술 등을 배우는 프로그램부터 글쓰기, 전문가 강연까지 한층 풍성해졌다. 시민의 삶 곳곳에 피어날 인문학의 향기를 따라가 보자.

자료. 고양시 도서관센터



‘고양시 도서관센터’  
홈페이지 바로 가기

※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모집 완료  
※ 기타 모집공고 및 프로그램 참여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도서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한층 수준 높은 인문학 여행

**주엽어린이도서관**은 김흥식 그림책 작가를 상주작가로 선정하고, 오는 9월까지 고양시민과 작가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김 작가는 도서관에 상주하면서 문학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다.

**아람누리도서관**에서는 한국 문학사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총 15회의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시험 없는 한국 문학 수업’ 프로그램의 첫 번째 순서는 고전 서사와 시가를 대중들의 눈높이에서 흥미롭게 소개하는 강연이다. 한국 문학사에 중요한 발자국을 남긴 현대문학 작품을 깊이 읽는 강연, 최근 주요 문학상 수상 작품집을 탐구하며 한국 문학의 오늘을 살펴보는 강연까지 이어진다.

**삼송도서관**은 신화를 심도 깊게 들여다보며 삶의 지혜를 찾는 ‘2022 도서관 지혜학교, 신화 속 삶의 지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서관 지혜학교는 신종년 세대의 주체적인 인문 활동을 지원하는 심화 프로그램으로 일상에서 인문학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쉽고 가깝게 만나는 인문학 길잡이

**대화도서관**은 ‘우리는 여전히 고전을 사랑한다’ 프로그램을 총 16회에 걸쳐 운영한다. 고전문학과 친해지고 싶으면서도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막막했던 시민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프로그램으로, 소설·경제·과학 분야를 망라한 고전을 전문가의 도움으로 완독할 수 있다.

서양미술과 그림책을 사랑한다면 **백석도서관**의 프로그램을 주목해볼 만하다. ‘그림 인문산책, 서양미술사와 그림책의 숲에서 그림을 보다’를 주제로 모네, 세잔, 고흐 등 유명 화가의 작품을 감상하며 미술사의 주요 흐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또 모리스 쉐넬, 존 버닝햄, 앤서니 브라운 등 그림책을 분석하며 그림에 대한 안목을 기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미술 전시회 관람 기회도 함께 제공되어 눈으로 직접 보며 미술과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나를 위한 글쓰기와 북스타트 부모교육

**삼송도서관**은 지난해 시민 호응과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나를 위한 글쓰기’ 프로그램을 올 해 시즌2로 이어간다. 지난해 프로그램의 노하우를 녹여낸 ‘나를 위한 글쓰기 2’에서는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내가 중심이 되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유아동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호응이 높은 삼송도서관에서는 북스타트 부모교육이 시작된다. 총 4강으로 이뤄지는 교육은 그림책뿐 아니라 유아 뇌 발달 등 육아 및 책 읽기에 도움이 되는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양시 도서관에서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 주엽어린이도서관

**위치** 일산서구 주엽로 104  
**휴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문의** ☎ 031-8075-9168



#### 대화도서관

**위치** 일산서구 일산로 689  
**휴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  
**문의** ☎ 031-8075-9130



#### 삼송도서관

**위치** 덕양구 덕수천로 73  
**휴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  
**문의** ☎ 031-8075-9360



#### 아람누리도서관

**위치** 일산동구 중앙로 1286  
**휴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  
**문의** ☎ 031-8075-9038



#### 백석도서관

**위치** 일산동구 일산로 118  
**휴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  
**문의** ☎ 031-8075-9090



## 따로 또 같이 문화가 있는 고양

고양시 곳곳에서 피어난 문화의 꽃들을 만끽하는 방법,  
고양아람누리과 고양어울림누리에 답이 있다.  
어린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뮤지컬부터 감성적인 피아노 연주까지,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다양한 공연이 관객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다.



‘고양문화재단’  
홈페이지 바로 가기



**고양문화재단**  
The Goyang Cultural Foundation

주소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  
홈페이지 [www.artgy.or.kr](http://www.artgy.or.kr)  
문의 1577-7766

1



2



3



4



5

1 \

### 동네 낯은 목욕탕에서 만나는 신비로운 판타지 세계 뮤지컬 <장수탕 선녀님>

엄마를 따라 아주 오래된 동네 목욕탕  
'장수탕'에 간 덕지가 냉탕에서 만난  
이상한 할머니 '선녀님'을 만나 한바탕  
신나게 놀며 펼쳐지는 가슴 따뜻하고  
웃음이 가득한 판타지 뮤지컬.  
아동문학계의 노벨상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한 백희나 작가  
그림책 <장수탕 선녀님>을 뮤지컬로  
만날 수 있는 공연이다.

**일시** 6.9.(목)~12(일) 목, 금 13:20 /  
토, 일 11:00, 14:00, 16:00  
**장소**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  
**티켓** 덕지석 60,000원,  
선녀님석 50,000원

2 \

### 만능 소리꾼 이자람이 들려주는 전통 판소리 이자람 판소리 갈라 <바탕>

이자람의 판소리 갈라 시리즈는  
고양아람누리과 어울림누리에서  
번갈아 선보이며, 전통 판소리를 담아낼  
<바탕>과 아티스트 본인의 창작  
판소리로 꾸며지게 될 <작창>으로  
구성된다. 특히 <바탕>은 전통  
판소리의 눈대목들로 구성하여  
이자람이 가장 잘 풀어가는 방식으로  
관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예정이다.

**일시** 6.10.(금)~11(토) 금 19:30 / 토 16:00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티켓** 전석 45,000원

3 \

### 아람 로열 클래식 III 피아니스트 유자 왕 리사이틀

파격적인 의상과 아찔한 하이힐을 신고  
무대에 나타나 연주를 시작하기도 전에  
청중을 놀라게 하는 마성의 피아니스트  
유자 왕. 컨디션 난조로 무대에 오르지  
못한 마르타 아르헤리치를 대신해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무대에  
오르면서 혜성처럼 등장한 그녀는 팬데믹  
속에서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바쁜  
피아니스트로 꼽히며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일시** 6.16.(목) 20:00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티켓** R석 110,000원, S석 90,000원,  
A석 60,000원, B석 40,000원

4 \

### 고양아람누리 상주단체 '공연배달서비스 간다' 신작 <어린왕자>

동화 '어린왕자'가 움직임이 강조된  
'공연배달서비스 간다' 스타일로 새롭게  
제작된다. 공연배달서비스 간다는  
<템플>, <뫼트> 등 상주단체 신작으로  
발표하는 작품마다 높은 완성도로 관객과  
평단의 애정어린 지지를 받고 있다. 신작  
<어린왕자>는 <템플>의 콤비 민준호  
연출가와 심새인 안무가의 결합만으로도  
2022년 상반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시** 6.18.(토)~26.(일) 금 19:30 /  
토, 일 16:00 (\*월,화,수,목 공연 없음)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티켓** 전석 30,000원

5 \

### 2022 아람누리 마티네 콘서트 <김현수의 스위트클래식 II>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하이든,  
모차르트의 작품을 통해 우아하며  
고풍스러운 선율을 느낄 수 있는  
마티네 콘서트가 찾아온다. JTBC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밴드'에서 우승한  
첼리스트 홍진호의 협연이 기대되는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과 함께  
모차르트의 극장 지배인 서곡, 모차르트  
교향곡 29번 1악장, 그리고 하이든의  
교향곡 45번 '고별'이 연주된다.

**일시** 6.30.(목) 11:00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티켓** 전석 25,000원  
※ 위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연, 전시부터 작지만  
문화예술교육까지  
시민 여러분의  
문화생활을  
응원합니다.

공연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정 게시판

###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요건** 나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주택보유: 부부기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 다주택자도 공시가격 합산이 9억원 이하면 가능

**대상주택**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복합용도주택, 농/어업인 주택은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월수령액 예시]** 종신지급방식(정액), 일반주택, '22.2월 기준

연령	1억 원		3억 원	6억 원
	기본형	(우대형)		
55세	16	17	48	96
60세	21	24	64	128
65세	25	28	76	153
70세	30	34	92	185
75세	38	43	114	228
80세	48	55	144	288

※ 부부 중 연소자 기준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 1.0%),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의 연 0.75%(대출상환방식 1.0%)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북부지사  
(☎ 031-540-5977, 5978, 5935)

### 고양시민대학 학습자 모집

**모집기간** 2022. 5. 30.(월) ~ 6. 17.(금)  
**강의기간** 2022. 6. 17.(금) ~ 7. 22.(금)  
**신청대상** 고양시민 누구나 무료(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고양시 평생학습포털 온라인 수강신청  
(<https://www.goyang.go.kr/edu>)  
**교육과정** 총36개(인문학, 예술학, 부모학, 미래학 등)  
**문의**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고양시 평생교육과(☎ 031-8075-2294)

위치	캠퍼스	주소	강의실
덕양구	고양생활문화센터(어울림마당)	어울림로 33(별따기배움터 옆)	동아리마당2, 3, 4
	고양평생학습관(어울림드레)	어울림로 33	3층 강의실
	성사청소녀문화의집	어울림로 33(별따기배움터 1층)	다목적실
	원당미성한의원	호국로789번길 7(주교동)	
일산동구	고양관광정보센터	중앙로 1271(장항동)	영상실(1층)
	최소리아트홀	고봉로551번길 17, 1층(성석동)	
	백마화사랑	애니골길 14-14(풍동)	
	중산공원	중산로 217	중산공원 내
일산서구	한양문고 주업점	중앙로 1388, 태영프라자 B1	공간, 한강홀

### 쿵쾅쿵쾅 고양 생활 악기 시민 합주단 축제

**일시** 2022년 6월 25일(토) 16:30  
**장소** 고양 어울림누리 생활문화센터 로비  
**식전행사** 14:30 ~ 15:30(선착순 20명)  
악종이 체험(악종이 작가 지도),  
악종이 전등 만들기  
**본행사** 1부: 쿵쾅쿵쾅 고양 생활 악기 시민 합주단 연주  
2부: 프로 연주자들의 향연

### 사회교육 프로그램 이용자 모집 안내

**모집기간** 2022년 6월 1일(수) ~ 6월 30일(목)

**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구분	활동 일시	모집인원
탁구교실(초급반)	화, 금 13:30 ~ 14:40	대기접수
탁구교실(중급반)	화, 금 14:40 ~ 15:50	3명
탁구교실(고급반)	화, 금 15:50 ~ 17:00	3명
실버댄스(60세 이상)	수 10:30 ~ 11:30	7명
웰빙스트레칭 체조교실 성인반(65세 미만)	금 10:00 ~ 11:00	20명

**장소** 고양시문촌7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  
**문의** 김동혁 사회복지사(☎070-8693-2273)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및 참여자 모집

**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 원)  
**I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 원)  
**신청기간** 상시  
**접수방법** 고양고용센터(방문접수) 또는  
홈페이지 [www.kua.go.kr](http://www.kua.go.kr) (온라인접수)  
**문의** 고양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 031-920-3910)

#### 지원요건

지원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	중위소득 60% 이하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특례	중위소득 120% 이하	4억 원 이하	무관
I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특정계층	15~69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청년층	18~34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중장년층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요건 없음	무관

###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여름학기 교육 안내

강좌명	강의기간	요일	강의시간	강의대상	수강료
1인 영상제작 초·중급(다큐에서 소셜미디어까지)	6.11.~8.13.	매주 토	09:30~ 12:00	일반	9만 원
시선과 느낌을 담은 사진(2) 다양한 느낌 표현하기	6.08.~8.10.	매주 수	19:00~ 21:30	일반	9만 원
디지털 흑백사진의 모든 것	6.08.~8.10.	매주 수	14:00~ 16:30	일반	9만 원
영상, 편집으로 끝내자(초급)	6.09.~8.18.	매주 목	09:30~ 12:00	일반	9만 원
영상, 편집으로 끝내자(중급)	6.07.~8.16.	매주 화	09:30~ 12:00	일반	9만 원
스마트폰으로 영상 제작하기	6.07.~8.16.	매주 화	09:00~ 11:30	일반	9만 원
인디자인으로 나만의 전자책 만들기	6.10.~8.19.	매주 금	09:30~ 12:00	일반	9만 원
나도 방송작가 기획부터 차근차근	6.09.~8.11.	매주 목	09:30~ 12:00	일반	9만 원
누구나 코딩 아두이노	6.11.~8.13.	매주 토	13:00~ 15:30	초5~중2	9만 원
Fun한 로블록스로 메타버스 활용하기	6.11.~7.30.	매주 토	09:30~ 12:00	초5~중2	9만 원

**문의** 고양영상미디어센터(☎031-960-9777)

### 2022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신청 안내

**대상자** 어린이 이용시설(22개 유형)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  
**신청기간** 2022년 4월 19일(화)부터 선착순 예약 신청  
**교육기간** 2022년 4월 19일 ~ 12월 31일(매주 월,화,수)  
**신청방법** 고양시 안전교육시스템(<https://ched.or.kr>)  
**문의**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고양시 시민안전과(☎ 031-8075-3046)

### 제14회 행복한 우리아이 사진콘테스트

**접수일** 2022년 6월 7일 09:00 ~ 7월 15일 18:00  
**접수처**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홈페이지([www.eaja.or.kr](http://www.eaja.or.kr)) 로그인 후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구분 접수  
**심사기준** 표현의 창의성, 내용의 진실성,  
사진의 기술, 인물의 표정  
**출품규격** - 컬러 흑백 구별 없음, 작품규격 미달 및  
디지털 합성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  
- 2MB 이상 용량의 JPG형태의 파일  
- 사진에 날짜가 인화되지 않은 작품  
- 미발표된 창작품  
(사진관, 전문가 작품 출품불가)  
- 보정되지 않은 작품  
- 출품 파일명 : 주제 00도(시,구)-참가자이름-제목(예: 가족-고양시-홍길동-행복한 하루)  
**문의**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31-975-3314(내선1번))



## 의정 게시판

### 오늘은 내가 고양시 시의원

고양시의회 '청소년 의회 체험교실'



####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직접 체험

고양시의회는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청소년 의회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의회 체험교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알리고, 민주적 의사결정 등 올바른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의회 체험교실에 참석한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입교선언을 시작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후 의사 보고·안건 상정·질의응답·심의 및 표결 등 실제 의회의 의사진행과 동일한 모의의회를 진행하면서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생활 및 관심사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직접 발언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

모의의회를 체험한 학생들은 “평소 시의원이 어떤 일을 하고 시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궁금했는데 체험교실을 통해 고양시민을 위해 어려운 일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라고 전하며, “의사진행 과정을 실제 체험해 보니 매우 뜻깊었고 나중에 본회의 방청을 신청해 보고 싶어요”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청소년 의회 체험교실은 지난 2년 코로나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재운영을 시작하며,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 청소년 의회 체험교실 견학 신청안내

- 운영일** 평일 및 매월 셋째 주 토요일  
※견학 희망일 1개월 이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양시의회 회기 중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장소** 고양시의회 본회의장
- 내용** 시의회 역할과 기능 프리젠테이션 설명, 의회시설 견학, 모의의회 의사진행 체험, 기념촬영 등
- 참여대상** 관내 초·중·고교 희망하는 학생
- 참가인원** 매회 10~50명 내외
- 접수방법** 고양시의회 홈페이지 내 청소년의회 견학신청 게시판
- 문의** 고양시의회사무국 의회홍보팀  
☎ 031-8075-3892~3



## 벤치에 홀로 앉아

글. 김보승(일산서구 대화동)



이제 내 나이 육십이던가?  
벤치에 홀로 앉아  
먼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바람 한 점이 스쳐 지나간다  
풀잎 소리가 구슬픈 노래를 들려줄 때  
가만히 앉아있는 저 노부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스라히 눈을 감으면  
어릴 적 내가 꾸던 아름다운 꿈  
시큰한 통증이 되어  
내 영혼을 두드린다

가만히 눈을 뜨자  
아련한 슬픔이 방울방울 밀려와  
내 가슴도 헤쳐 버린다

이제 내 나이 육십이던가?  
벤치에 홀로 앉아  
어릴 때 꾸던 아름다운 꿈을  
하나 하나  
줍기 시작한다





## 독자의 소리

5월호를 읽고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입니다.

### 독자 소리함

노윤지  
(서울 마포구 도화동)

은빛바람 코너의 어린이놀이터 지도봉사 방역활동사업단 내용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어르신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꼼꼼하게 방역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를 해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성예  
(일산동구 정발산동)

고양시에 살면서 고양시에 대해 아는 내용들이 없었는데 <고양 소식>을 통해 고양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유용한 고양시의 정보와 소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엽서 설문 참여 당첨자 : 김영순(원흥동), 이정호(파주 금촌동), 임명지(관산동), 장영빈(장항동), 허양남(화정동)



## 고양 사랑방

시, 산문, 수필 등 시민의 실력을 맘껏 펼쳐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고 종류 시, 수필, 에세이, 기행문, 독후감, 사진, 만화 등 제한 없음  
원고 분량 A4 용지 이내(시, 만화 등은 적정 분량)  
보내실 곳 이메일 : gysosik@naver.com  
우편 : 10460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실 <고양소식> 담당자  
※ 보내주신 작품의 오타, 비문 등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고양소식>은 어떠셨나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 더 알찬 <고양소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온라인 애독자 참여 바로가기

### 고양시와 소통해요!

오늘 고양시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양한 소통 채널로 생생한 고양시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고양원픽



시 홈페이지



유튜브



카카오채널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사용할 때마다 탄소를 지우는

# 고양 탄소지움카드 출시

2050 탄소중립을 향한 녹색생활실천 카드



지역화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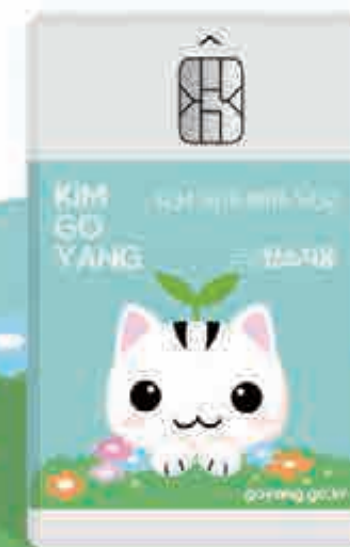


NH농협  
체크카드

탄소포인트

교통카드

2022년  
5월30일부터  
발급가능!



고양탄소지움카드는 녹색생활 실천 시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가점카드 사용 시	로컬푸드 이용 시	기후·환경교육 이수 시	온라인 나눔마켓 이용 시	탄소포인트 적립 시	지역난방 열량 시
	LOCAL FOOD				
인센티브 지급 (7월)	인센티브 지급 (9월)	인센티브 지급 (9월)	나눔·리퍼·교환 가능 (11월)	인센티브 지급 (12월)	공동주택 인센티브 지급 (12월)

고양시 43,000여개 고양페이 가맹점에서 인센티브 사용가능!

고양탄소지움카드 발급

□ 모바일 발급 시 : 플레이스토어 or 앱스토어에서 고양탄소지움카드 어플 설치 후 카드발급  
□ 현장 발급 시 : NH농협은행 영업점 및 농협점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 행주

“다시, 우리! 여기, 행주!”

## 제34회 고양행주문화제

Goyang Haengju Cultural Festival

2022. 6. 10. (금) ~ 6. 12. (일) / 3일간

행주산성 및 행주산성 역사공원 일원

### 행주대첩 투석전

6. 11.(토) ~ 12.(일)

역사공원 내  
투석전 경기장

### 행주 수상불꽃놀이

6. 11.(토) ~ 12.(일) 21:00

역사공원  
수상특설무대

### 개막공연 노름마치

6. 11.(토) 11:00

역사공원  
특설 메인무대

### 폐막공연 뮤지컬 ‘행주대첩’

6. 12.(일) 19:30

역사공원  
특설 메인무대



고양문화재단



고양행주문화제

Bravo! 2022  
GOYANG

주관기관인행주대첩

예정년 신입생 OT

#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온라인** 6. 7(화)~6. 13(월)  
www.goyangjob.co.kr

**오프라인** 6. 14(화) 13:00~17:00  
고양꽃전시관

**이런의**

**온라인채용관** 30개 기업 채용정보  
이력서 사전접수

**취업특강** 중장년 대상 맞춤형  
취업특강(3일간)

**중장년 지원**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지원

**이런의**

**현장면접관** 구인기업 인사담당자와  
구직자 1:1면접

**진로탐색관** 장남/귀농 귀촌 귀어컨설팅/  
미래일자리 탐색 멘토링

**잡·JOB확대식관** 직업훈련/생애설계/  
공공일자리/자원봉사

**취업클리닉관** 일자리상담/이력서 컨설팅/지원서작성/  
퍼스널컬러/이력서 사진촬영